

CBMC 미주한인 CBMC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당신을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신년 하례식 및 가든그로브지회 창립대회



지난 달 28일 남가주연합회(회장 이봉우) 주최로 부에나팍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회를 겸한 가든그로브지회 창립 대회에 강승태 총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따라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남가주연합회는 남가주지회, K타운지회, 부에나파크지회와 함께 4개 지회를 두게 됐다.

이날 예배에서는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가 'CBMC에 허락하신 소명'이라는 설교를 통해 성경적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만성적자로 허덕이던 미주복음방송의 사장을 맡아 기업인의 경험을 살리고 기도로써 복음 방송을 정상화 시키면서 본질적 사명에 집중한 것처럼 기독교실업인회도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승태 총회장은 이어 부에나팍 최혜나 2대 회장과 가든그로브지회 민 김 초대회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고, 창립을 축하하였으며, 이임하는 최상태 부에나파크 지회장에게는 이봉우 연합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 총회장은 "남가주연합회가 지난해 이봉우 회장 중심으로 조직이 재건되며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며 "특히 가드르로브 지회 창립을 계기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어바인과 인랜드, 다이아몬드바 등에서도 지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가든그로브지회 창립대회에서는 지도목사인 안신기 목사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심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창조신학을 비즈니스에 접목해 무에서 유로,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는 실업인들이 배출되는 가든그로브 CBMC가 되기를 기도하고 새로 구성된 임원진을 소개했다. 임원진은 민 김 초대회장 외에 윤우경 부회장, 최우성 총무, 에스더 장 서기로 구성됐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에나팍 2대 회장을 맡은 최혜나 회장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 CBMC부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드르로브 지회를 맡은 민 김 초대회장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실업인들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든그로브 지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했다.

황선철 직전총회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지난해 CBMC와 한솔보험 45주년 골프대회를 통해 차세대 학생들에게 4만불 장학기금을 마련해 전달했다. 강승태 총회장이 2대 회장으로 애쓰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가장 우수한 cbmc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CBMC 회원들 뿐 아니라 오렌지카운티 교협, 미주한인120주년재단, 남가주연합회 소속 지회 회원 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신년하례회를 빛냈다.

서부총연은 2023년 사업계획으로

1. 제2차 차세대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 (4월3일 로스코요테스골프클럽)
2. 제12차 세계대회 및 제49차 한국대회 (8월15일-18일 3박4일 일산 킨텍스)
3. 제2회 cbmc 서부대회 및 리더쉽 스쿨 (10월 예정)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차례

신년 하례식 (사진)	1쪽
가든그로브지회 창립	2쪽
만나이야기 - 최승암 목사	3쪽
하나님의 긍휼-임봉대 목사	4쪽
땅끝 향기-김보순	5쪽
광고 :	6쪽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제12차 CBMC 세계대회	
총회 및 모임 안내	7쪽

만나이야기 - 지혜롭지 못한 부자 이야기

최승암 목사 - 트라이밸리 지도목사

“지혜롭지 못한 부자 이야기”로 나눔을 하면서 몇 가지를 적어 봅니다.

먼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둔다”는 뜻이 무엇인지 요즘 유행하는 Chat GPT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푹푹한 답을 하네요. [이 구절은 물질적인 보물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영적인 가치와 보상에 대한 강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땅에 쌓인 보물이 쉽게 도난 당하거나 파멸될 수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들은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며, 영적인 것들은 영원하고 불멸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리고, 영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해 1도 모르는 컴퓨터 시가 영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 지회에서 나눈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1.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은 비단 많이 소유한 부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취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마 6:33). 여기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해당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딤후 6:10)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이지요. 부자도, 가난한자도 돈에는 근본적인 이끌림이 있고, 욕심과 죄성이 탐심을 자극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돈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더 탁월하고 민감한 파수꾼을 세울 수 밖에 없지요.

2. 구제와 나눔은 이웃 사랑 실천이지 재활용 물건 처리가 아닙니다. 수년 전, 아프리카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 그러나 전달할 수 없는 선물도 있었습니. 입던 옷, 신던 신발, 사용하던 물건을 재활용 처리하듯 들고 온 것이지요. 이웃을 돕고 나눔을 베풀 때는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라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누어야겠습니.

3.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몇 줄 글도 날밤을 새어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누에 고치 실 뽀뽀 글이 되고, 책이 만들어지는 작가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 재주가, 어떤 이는 글재주가 능하지만 정말 가끔은 (이어령 박사 같은 이) 말과 글이 모두 뛰어난 재주꾼도 있습니다. 세상의 재주와 재능, 은사와 기술이 어찌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불공평하게 한쪽에 쏠린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나누고 펼칠 수 있을까요? 더 가진 재능, 더 가진 은사, 더 가진 물질은 그렇지 못한 곳으로 끝없이 흘러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창 12:3) 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긍휼 (rahamim)

임봉대 목사(샌프란시스코 CBMC)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렘 31장 20절)

“긍휼”이란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인자와 긍휼에 있다(시편 103편 4절). 히브리원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하뎀”(rahamim)인데, 어원은 “레헬”(rehem)이다. “레헬”은 “모태”, 즉 어머니가 아이를 배는 “자궁”을 뜻한다.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모태,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어머니가 자신의 모태에 임신한 아기에 대해 갖는 마음과 같다.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한다. 솔로몬은 아이를 둘로 잘라 두 여인에게 나누어주라고 명령한다. 가짜 엄마는 아이가 죽어도 좋으니 반쪽이라도 달라고 한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아이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줘도 좋으니 제발 죽이지만 말아 달라고 간청한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에서 “마음”의 히브리 원어는 “레헬”이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재판을 통해서 보여준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진짜 어머니를 구별해 낸 것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의 진정한 지혜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믿었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을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식을 향한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믿었던 솔로몬이 인간들을 향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거듭나는 곳이며,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마거리트 Marguerite

<산타클라라 CBMC>



미주서부 총연 북가주 연합회 산타클라라 예비지회 (준비위원장: 실비아 리)는 2월22일 오전 10시 30분 이진 총무 사무실에서 첫 대면 만나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강승태 총연회장과 김이수 지도목사를 비롯하여 신승수, 실비아리, 이진, 홍성준, 박선주, 신형우, 앤드루 김, 제니퍼 성, 최형란등이다. 관심있는 분들은 총무 이진씨에게 연락하면 된다. (408) 963-3476

땅끝향기

푸른 초장

김보순

해마다 우리가 속한 KGAM(Korean Global Alliance Mission)의 가족모임 겸 정기모임이 열린다. 그 중 1997년 2월에 있었던 모임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모임에서 우리 팀은 선교사 자녀 기숙사를 세우기로 했다. 장소는 치앙마이이고 우리 가정이 기숙사 부모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당시 우리는 30대 초반이었고 3살, 4살된 두 딸이 있었다. 어린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맡긴 선교부도 대단하고 그것을 해 보겠다고 수락한 우리 가정도 무모했던 거 같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큰일인지 알았으면 결코 동의하지 않을 일을 덜컥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안다.

선교지에 오기 전에 교사로 일하면서 교사를 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고, 야간에 선교대학원에 다니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선교사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언급하실 때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었다. 그리고 방콕에서 언어를 배우는 동안 우리의 사역지가 메솟에서 치앙마이로 바뀌었다.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카렌 목회자 훈련원 사역을 위해서 총회와 신학교가 있는 치앙마이로 오라는 현지 교단의 결정 때문이었다. 우리의 사역 장소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변하는 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부르심의 내적 확신과 현지 상황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사역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997년 6월에 방콕에서 태국어 언어습득 과정을 마친 우리 가정은 치앙마이로 이사하여 방 다섯 개의 큰 집을 빌려 기숙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름을 '푸른 초장'이라 지었다. 남편은 두 번째 사역언어인 카렌어 공부에 전념하고 나는 기숙사 사역에 전념하면 좋겠다는 팀의 제안에 따라 사역을 시작했다.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기간 동안 12명의 선교사 자녀들과 생활했다. 그렇게 시작된 푸른 초장이 23년이 지난 지금(2020년)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이다. 푸른 초장을 거쳐 간 선교사 자녀들도 많고 기숙사 부모로 섬긴 분들도 여럿이다. 한국 선교 역사상 푸른초장이 첫 선교사 자녀 기숙사라고 하니 나름 의미 있는 일에 쓰임 받았음에 감사한다.

성장 환경이 다른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다. 기숙사 부모가 안식년을 가야 할 때 대체할 사역자가 필요해서 두 번 더 푸른초장에서 섬길 기회가 있었다, 세 번의 섬기는 기간 동안 에피소드도 많았고 갈등도 있었다. 열악한 선교지로 떠나며 자녀를 이곳에 보내는 부모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있다.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선교사 자녀들인데 여러 명이 같이 지내다 보면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기에 기상 및 식사 시간에 제약이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자녀들도 있다. 삼십 대 초반이라 사춘기 청소년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우리도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때는 우리가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같이 살아준 아이들이 대단하다 싶다.

그런가 하면 푸른 초장 사역자로 누린 많은 축복도 있었다. 팀으로 사역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움을 나눠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이곳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당시 그 상황에서 필요했던 기숙사 사역을 통해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에 감사를 드린다.



차세대청년리더장학기금/ 미자립교회/ 세계한상대회기념

제 2회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골프**대회

특별후원: 서울메디칼(SMG)/ OC 한인상공회의소/ 한솔보험



제공: 한미보험

Date: Apr,3 (Mon) 2023

Place: Los Coyotes Golf Course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Head Count : 11AM

Shotgun : 1PM

접수마감: 2023년 3월24일 오후5시

참가비 : \$150 (골프fee +만찬)

문의처 : 안신기 (909.677.0028)

GOLD SPONSOR	\$10,000	5명Free 및 T Sign	Full Page 표지
SILVER SPONSOR	\$5,000	3명Free 및 T Sign	Full Page 광고
BRONZE	\$2,500	2명Free 및 T Sign	2/1 Page 광고
TEE SPONSOR	\$500	1명Free 및 T Sign	
	\$300	T Sign	

Payable to:Kcbmc USA, #83-4155731

행사 수익금은 전액 차세대 기독교청년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대회장 : 강승태 / 공동대회장 : 황선철
 명예대회장:노상일(OC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차민영
 부대회장 : 이봉우, 계용식, 오윤호,
 총괄위원장: 안신기
 집행위원장: 이원표
 부 집행위원장: 류민호
 대회협력준비위원장: 송중보,오현근,최혜나,민김
 공동준비위원장: 손대운, 박성희, 최계영, 박래일,
 허정무, 프랭크 윤, 실비아 리
 경기위원장 : 케빈 문 (teaching professional)
 (메달리스트, 챔피언은 장학생1명 추천권과 본인명의 장학금 전달함)

주최: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KCBMC)

후원: 미주한인보험인 협회, OC한인회,OC한미노인회,OC/SD민주평통,OC장로협의회,남가주ROTC,LA한인상공회의소,OC체육회,KACC,OC기독교전도회연합회,OC시민권자협회

미디어스폰서 : 조선일보,중앙일보, 한국일보, 일요뉴스,라디오코리아,타운뉴스,CBS미주기독교방송,US메트로뉴스,Kwave(주),스포츠서울

협찬 : 마동환 변호사 그룹,UNI Good Friend보험,NGL Transportation,JAR Ins.inc. SCAN GSA항공산업(주),SEEUN Corp(세은), 연세대남가주동문회,용산고 남가주동문회,목요골프회,갈보리선교골프회

우리지회 월간 스토리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연합회장님, 지회장님과 총무님!
지난 한 달간 지회모임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귀한 사역의 이야기
 - 회원 동정 (사업확장, 개업, 조경사)등
- 귀담아 듣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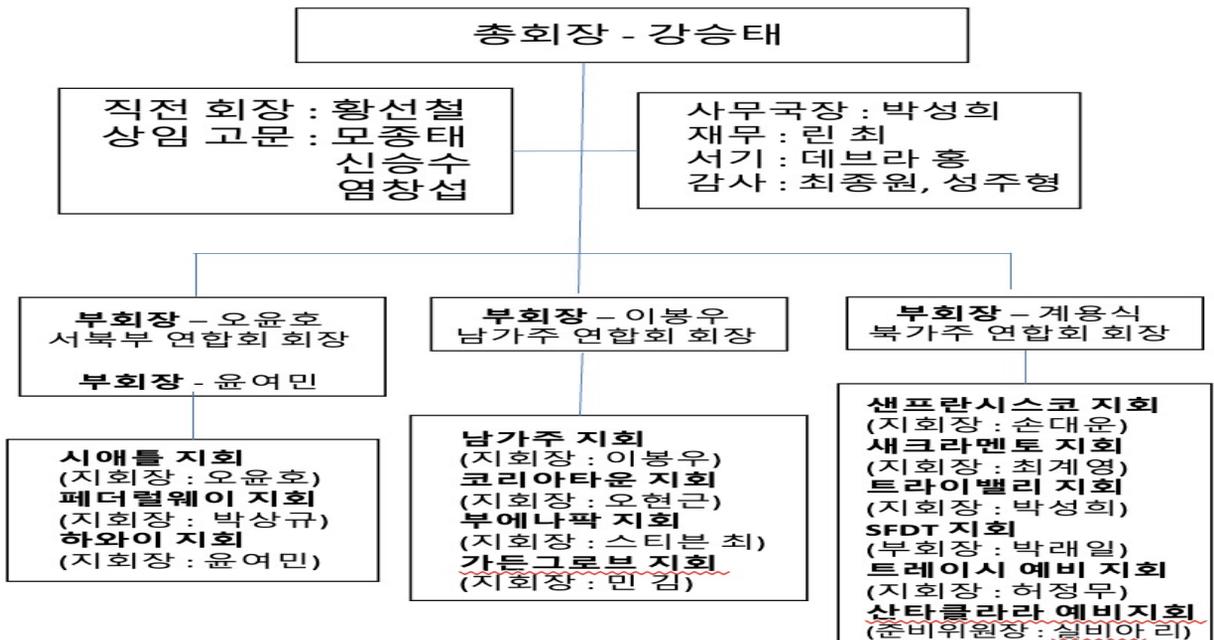
제12차 CBMC 세계대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 CBMC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역, 하나의 사명
UNITY IN CHRIST | CBMC : ONE MINISTRY, ONE MISSION, UNITED IN CHRIST

2023년 08월 15일(화)-18(금)



미주한인기독실업인서부총연합회



CBMC (기독교실업인회) 목적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직업인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마태복음 28 : 18-20, 사도행전 1 : 8)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

2023 주제 :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행 3:6)

목 표 :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쉽 **표 어 :** 100개 지회 (재) 창립 역량강화 일터복음사명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ing to Christ>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실업인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태동했으며, 기독교실업인 (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입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가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한인들의 기독교실업인회는 1975년 남가주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년 1월25일 창립된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는 2020년 1월 25일 서부총회 명칭을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총회 (KCBMCUSA), 2022년 10월 18일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로 변경했습니다. 총연은 서북부 연합회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주와 밴쿠버, 하와이), 북가주 연합회, 남가주 연합회 3개 연합회의 각 소속 지회로 구성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CBMC 연합회 지회 모임 안내 : COVID-19 사태로 비대면 ZOOM 화상 / 대면 회의 및 기도회

<p>남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이봉우)</p> <p>남가주 지회 (회장 : 이봉우)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코리아타운 지회 (회장 : 오현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부에나팍 지회 (회장 : 스티븐 최)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30</p>	<p>가든 그로브 예비 지회 (회장 : 민 김)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북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계용식)</p> <p>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 손대운) 모임 : 매주 정례 (금) / 줌 *시간 : 오전 7:00</p> <p>새크라멘토 지회 (회장 : 최계영)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전 6:30</p>	<p>트라이밸리 지회 (회장 : 박성희) -모임 : 매주 정례(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SF 다운타운지회 (부회장 : 박래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트레이시 예비 지회 (회장 : 허정무) 모임 : 주별 비정례</p> <p>산타클라라 예비지회 (준비위원장 : 실비아 리)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서북부 연합회 (연합회장 오윤호)</p> <p>시애틀 지회 (회장 : 오윤호)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페더럴웨이 지회 (회장 : 박상규) 모임 : 주별 비정례</p> <p>하와이 지회 (회장 : 윤여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	--	---	---